

“마음 잘 맞는 조승우...나이 들면 ‘꽃보다 할배’ 같이 찍을래?”

‘명당’ ‘라이프’ 등 9월 한 달간 영화·드라마 5편 소화...명품배우로 거듭난 **유·재·명**

드라마 ‘비밀의 숲’을 보고 직감했다. 머지않아, 이 배우의 ‘시간’이 오리라는 사실을. 당시 유재명(45)을 본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어느 것 하나 고투리 잡을 수 없는 연기력을 갖췄으니 말이다. 꼭 1년이 지났다. 유재명은 이전 영화나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내뿜는 카리스마는 또 어떤가. 9월 한 달간 그가 선보인 영화가 세 편, 드라마도 두 편이나 된다. 그만큼 여기저기서 유재명을 찾고 있다는 의미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본 연극에 빠져, 20년 넘도록 오로지 연극에만 몰두해 살아온 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고 있다.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지금의 상황에 그가 특 내뿜은 한마디, “살다보니 참, 별 일 다 있다”.



● “연극은 내게 ‘열병’...7년 전 서울로 도피”

유재명은 이번 추석에 영화 ‘명당’으로 관객과 만났다. 주연을 맡은 다양성영화 ‘죄 많은 소녀’와 ‘봄이 가도’ 역시 동시에 극장서 상영하고 있다. 얼마 전 드라마 ‘라이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와중에 단막극 ‘탁구공’까지 소화했다. 그는 “이거 안하면 후회 하겠다” 싶은 마음에 한 편씩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부산이 고향인 그는 생선 장사를 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께 “효도하자”는 생각에 등록금 싹 국립대(부산대)에 진학했다. 전공도 연기와는 무관한 생명공학을 택했다. 특별한 꿈이 없던 인생은 대학에 입학한 직후 달라졌다.

“입학한 3월에 우연히 연극을 봤다. 상여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버렸다. 그렇게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다. 연극에 미쳤다. ‘열병’ 같은 게 있었지. 어머니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다. 집에 안 오고 연극하면서 술 먹고 다니니까, 그런 게 오랜 내 삶이었다.”

유재명은 30대 중반에 부산에서 극단을 만들고 연출까지 했다. 극단 이름은 배우, 관객, 공간을 줄인 ‘배관공’. 그의 표현에 따르면 “예술병에 걸린 뜨거운 때”였다. 그러는 틈틈이 부산서 촬영이 진행되는 영화에 단역으로 참여해 돈을 벌었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나설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7년 전 돌연 상경했다. “외유성 도피”라고 했다.

“너무 많은 열정을 쏟다가 번아웃! 아무런 계획 없이 서울로 왔다. 선배들 만나고 연극도 볼 심산이었다. 그렇게 놀러 앉았다. 마흔 살까지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나름 흥그라운드 인프라도 있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이

거 원. (웃음) 아는 사람들 따라 영화사에 프로필도 냈지만 안됐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고 ‘이제 내려가야지’ 했다.”

바로 그 때 유재명은 자신의 연극을 보러 온 지금의 매니저를 만났고, 그 직후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는 사이에도 서울살이는 녹록치 않았다.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성북구의 한 옥탑방. 경제적으로 나아진 지금은 근처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유재명은 요즘도 가끔 그 옥탑방을 찾아 간다고 했다.

“옥탑방 앞에 가서 그 집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예전의 간절한 마음이 되살아난다. 힘들었지만 뜨거운 때였다. 지금은 일도 많고 행복할 수 있지만,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다. 인생이 열 바퀴의 레이스라면, 나는 다섯 바퀴를 100미터쯤 앞둔 상태다. 레이스를 잘 완주해야 한다고, 늘 새기고 있다.”

● “내 연기에 비린내가 나면 뒤통수를 때려줘”

유재명은 지난해 ‘비밀의 숲’으로 한창 주가를 높이던 때에 영화 ‘명당’을 택했다. “인생의 캐릭터를 만났지만 연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흰 머리카락이 확 올라올 정도로 힘든 드라마”를 마치고 한동안 쉬고 싶었지만, 시나리오 속 구공식이란 캐릭터에 마음이 흔들렸다.

“얼굴 작은 꽃미남들 사이에서 벌레 쏘인 단 한 사람처럼, 전망을 떠는 구공식이란 인물이 날갯짓하는 게 좋았다. 자기만의 신념

을 가진 조력자란 점도 마음에 들었다. 민초의 생활력을 보이는 인물이다.”

‘명당’에 함께 출연한 배우 조승우는 이제 유재명을 이야기할 때 필수 수 없는 인물이다. ‘비밀의 숲’부터 ‘라이프’까지 내리 세 편을 같이 했다. 그는 조승우와 처음 촬영장에서 만나 연기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나와 맞는 상대를 만났을 때 서로를 직감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느낌이다.

“승우가 서른 편을 같이 하고 싶다고 농담을 던졌지만 그건 너무 먼 이야기다. 하하! 언제, 어느 때든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와! 반갑네 친구!’ 하면서 같이 연기할 친구다. 훗날 ‘꽃보다 할배’를 하게 된다면 꼭 같이 가고 싶은 친구이고.”

앞으로도 ‘마약왕’, ‘나를 찾아줘’ 같은 상업영화로 관객을 만나게 될 유재명은 한편으로 메시지가 분명한 작은 영화들에도 주력한다. ‘죄 많은 소녀’와 ‘봄이 가도’에 이어 예술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주연영화 ‘속물들’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다.

“술자리에서 어떻게 연기하면 좋은지 물어보는 후배들이 한둘씩 생겼다. 그럴 땐 솔직하게 말한다. 연기를 안 해도 된다고, 우리 때와 다르지 않다. 연기 말고도 더 행복한 일이 분명 있다. 나도 오디션에 수없이 떨어졌다. 배우가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 절망하지 않길 바란다. 나도 하다보니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유재명은 친한 후배와 동네를 산책하면서 나눈 대화의 한 토막을 들려줬다. “내 연기 비린내가 나면, 뒤통수 때려달라고 했다. 열심히 달려서 잘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중심’은 놓치지 않아야 하니까.”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20년 이상 연극에 몰두했던 배우 유재명이 지금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9월 한 달간 선보인 작품이 ‘명당’을 포함해 다섯 편인 그는 “살다보니 별일 다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NCT 127, 美 ‘지미 키멜쇼’ 출연

그룹 NCT 127이 미국 ABC 유명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한다. NCT 127은 10월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 ‘지미 키멜 라이브’ 녹화에 참여하며, 같은 날 방송된다. ‘지미 키멜 라이브’는 유명 코미디언 지미 키멜의 진행으로 매주 월~금요일 밤 11시 35분(미국 동부표준시) 방송되는 미국 ABC 간판 프로그램이다. NCT 127은 ‘소방차’ ‘무한적자’ ‘체리 밤’ 등 발표하는 곡마다 세련된 음악 색깔과 퍼포먼스로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NCT 127은 10월12일 국내외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조우진, 12년 교제 여친과 내달 결혼

배우 조우진(39)이 10월14일 12년째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소속사 측은 25일 조우진의 결혼소식을 전하며 “일반적인 예비신부와 양가 가족을 배려해 예식은 가족 및 친지,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우진은 2015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9년간 사랑을 키워온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99년 연극 ‘마지막 포옹’으로 데뷔한 조우진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고, 드라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장길’ ‘마약왕’ ‘돈’ ‘국가부도의 날’ ‘전투’ 등의 영화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JYP 떠난 전소미, YG에 새 등지

JYP를 떠난 전소미가 YG에 등지를 틀었다. YG엔터테인먼트 산하의 더블랙레이블은 “아티스트로서 재능이 입증되고 잠재력이 무한한 전소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다양한 시도와 활동으로 최정상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소미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멤버로 활약할 예정이었지만, 8월20일 전격적인 전속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졌다. 더블랙레이블 측은 “전소미의 가급적 빠른 데뷔를 위해 걸그룹 멤버 또는 솔로 가수 데뷔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전소미는 엠넷 ‘프로듀스 101’에서 우승해 아이오아이 멤버로 활약했다.

셋째 임신 선에 “은퇴 생각한적 없다”

최근 셋째 임신 소식을 전한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SNS를 통해 “연예계 은퇴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선예는 원더걸스 활동 당시 느꼈다는 ‘공허함’이 다시 언급되자 “제가 말한 ‘공허함’은 꿈을 이뤘지만 내가 기대했던 행복 또는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였다”며 “저의 소중한 원더걸스 시절이 다 공허했다. 부질없었던 표현되고 그리하여 나는 연예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결론지어졌다. 올해 은퇴시킬 바란다”라고 해명했다. 2013년 결혼으로 연예계를 떠나있었던 선예는 8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소식을 전하며 5년 만에 복귀를 알렸다.

대만 배우 임청하, 24년만에 이혼

‘동방불패’ ‘중경삼림’으로 유명한 대만 여배우 린칭샤(임청하)가 결혼 24년 만에 이혼했다. 26일 대만 주간지 징저우칸은 “2016년 이혼 소문이 돌았던 린칭샤가 이번엔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징저우칸은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식 문제로 심신이 지쳐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딸들도 이미 장성했기에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다”며 위자료로 80억 대만달러(2919억원)를 받았다고 전했다. 린칭샤 남편 싱리위안은 의류업으로 시작해 현재 300억 대만달러(1조94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해 세계 500대 갑부에 올라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